

사설

개교회 직영버스는 꼭 필요한가

우리 지역에는 여덟 개의 성당이 있고 성당간에는 일정한 경계가 있어 신도들은 저마다 자기지역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아무런 불문없이 새로운 성당의 소속인으로 종교생활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날 개신교회의 사정은 어떠한가. 20~30년 전만 해도 교회당 위치의 거리에 대한 불문은 같은 신앙적인 윤리와 도덕성이 잘 지켜져 왔다. 개척하는 교회의 경우 기존교회 인근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찾아 볼 수 없는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신앙관이나 인간관계에 따라 소속교회를 결정하고 있는 경서 때문인지 인근에 여러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교회에 소속을 두고 다니는 건종정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버스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교회성장책의 하나로 직영버스를 운행하게 되었으며 버스 등 기동력이 있는 만큼 예배 인구의 증가와 성당에 보탬이 된 것은 사실일 것이다. 마이가 시내에 들어 당면해서 시가지를 운행하는 교회버스를 목회할 때면 오늘 교회가 성기가 할 대성일이 산책에 있는데도 당면 버스와도 운행하려는 속내를 알고 싶어진다. 교회행사 등 다중이 이동할 경우, 전세 버스를 활용한다면 그만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모 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3대의 직영버스를 지입해 운영으로 전환하여 건강한 교회개척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교회의 직영버스는 꼭 필요한 것인지 깊이 생각할 때다.

교회 청소년 연합교육 훈련 필요하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대중문화와 패션을 선호하고 있다. 음식과 복장 등 모든 분야에서 혼합적 사고가 가치 인정되고 탈문화의 모습으로 새로운 문화를 위해 정신없이 질주하고 있다. 교회는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한 진지한 이러한 문화 영향권에서 탈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도의 흐름은 시대의 조류를 역류하기보다 선별적으로 수용 또는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을 걸어 잠그는 소극적인 정책을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따라갈 수는 더욱더 없는 일이다. 청소년은 교회의 차세대 주인이다. 이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한다면 오늘과 또 다른 교회를 연출하게 될 것은 자명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늘을 사는 목사, 장로들에

게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 인도 비하루주 파트나에서 열린 가톨릭의 한 집회를 구경할 수 있었는데 전면벽에 걸린 예수님의 양상이 '부다'의 손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혼합종교의 일면이었다. 최근기독교연합회에서는 초교와 연합으로(16교회, 300명) 어린이 여름성경캠프를 열고 지역내 능력있는 우수 교사들에게 교육 훈련을 맡겨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청소년 문제를 공동 과제로 삼고 각 분야별 우수 지도자를 육성하는 등 대처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육훈련을 위해 대교회의 배타적이고 편협한 강박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훈련된 우수 지도자들을 통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독교 유산개발 보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고 문화명령을 주셨다. 기독교인들의 존재 목적과 가치는 이 문화 명령 수행여부라 평가될 것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이 창조주를 닮아가도록 하는 일련의 작용들이 우리의 존재가치일 것이다.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법, 우리 사회의 법을 잘 지키고 선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린자를 먹이고 우는자를 위로하며 놀린자를 일으키고 땅에 주님의 뜻이 편만하도록 힘써야 한다. 황성의 노정교회에서는 문화명령의 응답으로 '바이블파크(Bible Park)'를 조성하여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는 신문지상의 보도가 있었다. 우

리 춘천은 "성서화운동"의 역사적인 도시이다. "성서동산" 조성에 대한 말이 있었지만 구상단계에서 멈추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교계지도자들은 무관심과 자기도취의 자세에서 깨어나 이어서 역사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내에는 애 교직원들을 이천 복원하여 교회활동관을 조성하고 교회 종, 강대성, 품고, 헌금마구나, 성경, 찬송가, 성가곡집, 가운, 각종 서적 등을 전시할 수 있기를 조원한다. 이 밖에도 남교회 유산으로 개발 보전에 가치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교회 말고 나 가정에서 독송과 분신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수숙회 대책을 세워전시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일교회 전교인 여름수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

춘천제일장로교회는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춘천시 남면 '바라리교회'와 '소호호텔'에서 6백여명의 교인들을 모아 제2회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다. "나눔은 삶, 성기는 삶, 열매맺는 삶"이란 주제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체험했다. 당회장은 박상호 목사는 설교에서 금년 주제의 삶을 통해 교회가 교회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성도들은 말씀과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등 3일 동안 크고 작은 열매를 얻은 채 하느님 열매를 다졌다.

참신도의 길은 디아코니아(diakonia) 즉 섬기는 삶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마10:45)이라 했으며 코이노니아(koinonia) 즉 나눔을 강조하면

서 서로가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섬김과 나눔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석기 목사(총회교육국장)는 섬김과 나눔의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원리에 대한 특강을 통해 성도들의 새로운 삶을 바쳐 주었다. "섬김의 향, 사랑의 집합"이란 성경공부는 성도들을 크게 깨우쳐 주었고 이단연구, 세계교회 특강은 새로운 도전을 주었다. 또 레크리에이션, 운동회, 야구와 철원경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단련으로 건강한 교회생활에 기여했다.

홍천군교회연합회 광복절 연합예배

홍천군 교회연합회(회장 허태범 목사)는 8월 12일 오후 3시 만민강교회(양명대 담임목사)에서 기관 강단(홍천군수, 국회의원, 도의회의원)과 전교회 구역지, 성도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주년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다.

양명대 목사의 사죄로 대표기도 권오현 목사(홍천강교회), 허태범 연합회장(홍천침례교회)의 "역사적인 삶을 존중하라"는 말씀이 있었으며 군정발원과 홍천복음화를 위해(조석환 목사), 나라의 안녕과

평화통일을 위해(박원대 목사), 교회성장과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위한(한재호 목사) 기도를 드렸다. 노승철 무관수, 유재국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장용진(강촌강교회)목사의 축사낭송과 만세삼창을 하고 김기찬목사(홍천성결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예배를 두 번째 연합예배로서 인근 구역지, 기관장, 사회단체장들은 예배 후 만민강교회에서 제공한 다과를 나누며 간담회를 가졌다.

무지개 동산 실버유료시설 증축 준공

복음선교회 복지사회실, 불우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은준 회장은 춘천시 동면 원곡리에 위치한 "무지개동산"을 3차에 걸쳐 증축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한 숙소, 중환자실, 주방, 욕실, 분산실, 강교, 예배실 등의 안식처를 마련했으며 노인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일요양 춘천시 우두동 105-6번지 350평 대지위에 실버유료시설인 "행복의집"을 완공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무지개동산: 춘천시 동면 원곡리 159 ☎241-7660 FAX 241-1343
●행복의 집: 춘천시 우두동 105-6 ☎242-6007 FAX 242-3005
☎후원은 각 은행지포로: 7517020 (사단법인: 홍천읍 집사(순복음춘천교회))



선교회소식

송주전선교회의 정오모임

송주전 선교회(회장 김자경 의회사무과장)는 8월 8일 정오 송주전읍 읍내리(역대리막구)에서 정오모임을 열고 하반기 헌신예배 및 불우이웃돕기 계회 등을 도회하고 친교시간을 가졌다.

8.15 백두대간 빛날기 기도

강원도기독교교회(대표회장 권오성목사)주관으로 8월 15일(수)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용평 리조트에서 백두대간 해발 기도회를 열고 북강원도 사랑의 자선기부대기 성금헌납식을 가졌다.

김리교동부원회 평신도 여름수련회

동부원회 남교회 연합회(회장 김병기목사)는 8월 16일부터 18일 까지 황산대성유리조트에서 김리교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김준호 목사(부원총회장)를 강사로 초청,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제17회 김리교 동부원회 평신도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송정초신복음성가경연대회

춘천남지방 청장년선교회 주최로 8월 18일(토) 오후 3시부터 석시강교회(임택환담임목사)에서 청소년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열렸다.

춘천중앙감리교회 목회자·장로 세미나 개최

춘천중앙감리교회 권오성 담임목사는 8월 3~4일 포천 베스타 호텔에서 목회자와 장로 36명을 대상으로 "21세기 중장기 교회성장"이라는 주제아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및 교인관리를 위한 강의로의 역할, 교회 인력관리에 있어서 장로의 역할, 교육관 신축을 위한 당면과제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세션전 입장 후 축하하는 세신자를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고 성전 인공을 중심한 전도사업에 총력 기도를 다짐하고 교회창립 1백주년 기념 예배당 1차 사업으로 본당을 건립하였으므로 10월 22일 봉헌예배를 드린 후, 2차 사업으로 선교교육관을 건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세미나를 마쳤다.

강릉 기독교 영동방송 20일 개국

영동지역의 복음전파(電波)를 목적으로 CBS기독교영동방송이 설립인가를 받아 7월 20일 오전 10시 강릉시 교동에서 위치한 강릉교육원 자리에서 개국기념식을 거행하고 개국축하사간과 간담

회, "행복을 전합니다"라는 프로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축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진규 목사(전 춘천CBS총무국장)는 본부 및 대구기독교방송을 거쳐 영동방송 초대 본부장으로 부임하였다.

몽골 선서글링제일교회 헌당 및 현지 단기선교

춘천제일장로교회(박상호 담임목사)는 교회설립 60주년 기념 사업으로 몽골 선서글링 지역에 선서글링제일교회를 건축했다. 박상호 목사를 비롯한 21명의 선교팀은 헌당예배와 단기선교를 위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5일 현지 교회에

서 헌당식을 거행했으며 단기선교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여름성경학교 운영, 캠퍼스 및 지역전도, 의료선교사역을 감당했다. 동 교회는 몽골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근목 목사를 현지교회 목사로 임명했다.



6,7월 성시선교 후원 명단

가인(7인)	춘천일신장로교회(이은주 목사)
이병연 김현철 안진숙 황순옥 허순영 임미애 성기은 최정호 한희원 이준택 임은경 송준호 최경호 장한복 오홍수 홍상훈 정용현 박동환 김기태 장기영 엄원남 박상문 김명진 이학규 조충환 한순수 유근장 조남진 김철수 민병업 황병환	춘천사남중앙장로교회(최성도 목사)
단기(7인)	춘천기독교장로회(허종구 회장)
강원대학교선교회(전상호 회장) 이원래(조순대(미도파출로로귀국) 이만호(영문(달로에방인) 조은계(기정회(베드로로방인) 이윤규(영광현의원) 한상일(이이콘리스트대)	
교회(10인)	복합후원(4인)
순복음춘천교회(김주현 목사) 춘천복음선교회(임택환 목사) 춘천소양성교회(이원호 목사) 춘천열린교회(신상관 목사) 춘천제일장로교회(박상호 목사) 춘천남사당장로교회(장태호 목사) 춘천복음선교회(김길종 목사) 원본선교회(김준호 목사)	허 현 (춘천출리클럽 회장) 민병업 춘천기독교장로회연합회 회장 최호찬/전도사(로코소법무법인) 제2회 금요초심연합회 기도

※성시후원계좌: (예금주-조남진)

계좌번호 203-02-280238 우체국 200022-02-129749
초월은행 716-01-001389 국민은행 301-01-0585-522

춘천이 성스러운 도시, 성시화를 거듭하기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오랜 시간 기도하며 봉사와 불로로 후원하고 계신 모든 춘천교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교회의 성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과 기쁨과 기적이 모였을 때 이루어 줄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믿어서 백성을 섬길게 마여 이기기를 나리**는 스스로 섬길게 마여 내일을 기대하라...**여수유어 7:13**

*** WORLD ***

수미국 목회자수요기 급증소조

청교도의 나라, 개신교를 대표하는 국가로 자부하는 미국에서 최근 개신교 목사가 부족해 교회들이 담임목사를 청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장로교단에 따르면 1천4백50여 교회 가 목사 청빙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역이 가능한 목사 후보자는 1천2백77명에 불과하다. 목사를 청빙하려는 교회수 보다 목사 후보자가 더 적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목사 기근의 주원인은 지난 10여 년간 전교인 조하이다. 수입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확산

되었고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 굳이 목회직을 맡을 필요가 없어졌다. 각종 종교단체에서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다.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경우 올해 졸업자 29명 가운데 목사안수를 희망한 사람은 19명에 그쳤다. 목사 후보자를 확보하기 위해 교회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사전 로비를 벌이기도 하는데 일부에선 사백과 자동차 등 각종 편의시설 제공을 약속할 정도이며 보통 10만대 이상의 교회로부터 청빙요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골 마을의 경우는 보수도 적고 교회제도가 부실해

아예 젊은 목회자 청빙을 포기해야 할 정도다. 이와 함께 기존의 목회자들이 일찍 은퇴하는 현상도 목회자 기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박종과 긴 업무시간, 많은 시간을 상대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과거보다 목회자들의 은퇴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수 파주이누나: 연대만 내사나성 성명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에서 현대판 마녀사냥이 성행하고 있다. 주술이나 마법에 걸렸다는 오해를 받게 되면 주민들에게 잡혀 처형당하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경찰은 이러한 살인행위를 근절하기는 커녕 법원도 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있다.

심부부의 추이배지방의회의 아우레리울 의원은 '얼마 전에는 멀쩡한 여성 15

명이 아니라는 누명을 쓰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박상헌된 사건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이처럼 마법에 걸리거나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출처된 협조하지 않아 사건 수사에 애를 먹는다.

지난 1980년대 초, 미국의 인류학자인 브루스 크나우트프는 웨스턴주에서 마을에서 체류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가계를 추적 조사한 일이 있는데, 조사 결과 최근 50년 동안 성인남녀 사망자의 1/3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살해된 사람들의 86%가 이처럼 마법이나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살해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나이 많은

여성이 주변에 자신을 보호해 줄 친척이 나 가족이 많지 않을 경우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 짐바브웨 대통령 부인, 교회는 AIDS의 유일한 대안

짐바브웨 대통령의 부인인 그레이스 무가베 여사는 지난 7월 4일 짐바브웨 교회위원회의 년차 총회에서 연한 연설을 통해 현재 짐바브웨를 덮고 있는 AIDS의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고 밝혔다. AIDS 환자에 짐바브웨를 위협하고 있는 AIDS 상황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가 부끄럽고 추잡하고 있는 AIDS 퇴치 메시지가 국민들의 행태와 생활 방식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AIDS의 퇴치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

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스 무가베 여사는 AIDS가 국민의 건강과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청나다고 말하면서, AIDS의 확산은 어느 개인이나 어느 한 기관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으며 전국민에 대한 범국가적인 홍보와 계몽을 통해 국민들 각자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UN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HIV 바이러스 보유자들 가운데 성인의 70%, 미성년자의 80%가 아프리카에 있다고 한다. 짐바브웨는 그 가운데서도 HIV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알려져 있다.

데코리에이션

캠프활동 지도자 정규교육 필요하다



정진완 장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지부장)

부분품을 안고 떠난 교회학교 수련회가 초상감이 되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고등학생을 살리려 뛰어들어 온 도사가 함께 세상을 떠났다.

목회자는 혼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어라 변명할까? 벌써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23명의 유적원형 꽃봉오리들이 새 피어 보지도 못하고 인연 어느 바닷가에서 한기만에 목숨을 잃었던 대 반성을 기억하자. 지도자로서의 자격도 없는 어른들, 지도자 돈에만 눈이 어두운 어른들의 무모한 야망함들이 수많은 꽃봉오리들을 앗아갔다. 캠프는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대안적이고 공동체적이며 대한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고 지적함으로서 최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효과적으로 나누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아무나 하나?' 학창 시절 몇 번 수련회에 참가했던 것처럼 초보적인 것으로 계획하고 지도하는 무모한 일들을, 여과 없이 목회자들은 청소년들을 캠프에 보내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C. Elliot 박사는 "미국교회 캠프만큼이나 공헌한 것이 없다."라고 발표했고, 콜롬비아 대학의 Sharp 박사는 "5일간의 캠프는 3주간의 학교생활보다 더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교육적인 효과를 측정했다. 필자가 5년간의 강원도학생영양강을 역임하면서 2박3일간의 교사와 학생이 생활하는 캠프는 몇 주간의 학교교육보다 교육적인 효과가 더 큰 것을 입증했다. 「반상」과 계속적인 「관계」에서 "느낌"으로 시작하고 "느낌"으로 끝나는 캠프는 John Dewey가 말한 "교육은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한 산 교육 그대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야영수련 활동은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상실되고 있는 인간성과 건강을 회복시켜 전진하고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날 학교교육

필자말

전 최현중, 설립교육과정, 강원도교육청 총무 장학관, 강원도민교육장 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지부장(2급지도자), 춘천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강원도청소년상담지원단 위원, 청소년 전문상담 자원봉사자, 사단법인한국기독교야영수련연맹 춘천시무문위원회, 춘천중앙교회 회 장로

국제 성시화를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 춘천 - 뉴욕 - 비하르의 파트너십 프로그램(11월 말~12월 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춘천과 뉴욕의 관계자들이 비하르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협력의 방안을 의논하는 올해 두번째의 기도 모임 및 협의회의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의 분명한 시인들을 보는 기간이 되도록, 참여자의 확고한 의지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마련과 진행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될 비하르 대가교(10개 도시)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자들과 준비, 그리고 주님의 성령인 인도하심 가운데 비하르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결의하는 주님과 함께 꿈꾸고 계획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의 도량을 파는 예수가족 이영철, 정문경 신교사 드림.

학인 영들이 믿음에 당하는 영적 전쟁의 강한 기도원장이 되도록, 그리고 방목한 10개 도시 지역 그리스도인들과의 아름다운 연합 기도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 장래의 시역은 인도 북동부의 미조람 현지인 장로교회와 파트너십교회의 협력으로 인력의 지원과 배려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이라면 협력할 미조람 현지인 선교사님(들)이 잘 충당되도록, 아름다운 협력 사역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특권으로 여깁니다.

축복의 도량을 파는 예수가족 이영철, 정문경 신교사 드림.

이달의
예화

"Christian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의 일이다. '프레데릭스버그 대전투'에서 남군과 북군은 모두 수 많은 부상자를 낸 채, 재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남군의 한 병사가 한 손에 물통을 들고 부상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려는 것이었다. 북군은 남군 병사를 향해 일제히 사격을 가하였으나,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고 고를 달리는 부상자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이를 바라보던 북군의 장교가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리고 남군을 향해 먼저 부상자들을 치료하라고 잠시 휴전을 제의했다. 휴전신청 동안 북군 장교는 남군의 그 용감한 병사를 향해 이 말을 물었다. 병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형벌

일본의 우메무라 성서 연구회의 지도자 우메무라 간조는 형벌 받은 자에게 없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형의 실행에 다. 생물의 곤란은 아니다. 형벌의 집행은 아니다. 가정의 사형은 아니다. 죽음 그것은 아니다. 그렇다. 형벌은 가난, 불행, 천벌 중에서 골라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형벌이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다. 미래와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속인이기만 한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재난이다. 가장 슬픈 형벌인 것이다. 실로 슬픈 것이 이해되지 못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야말로 참된 형벌 아니고 무엇인가? 이 슬픈 형벌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라.」

교계단신

- ▲ 남천중앙교회(유인형 담임목사)는 지난 8월 2일 창립 82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창립 기념 성가제를 가졌으며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11분부가 교인 호호교회에서 제22분부는 속초침례교회에서 각각 수련회를 개최한다.
- ▲ 춘천중앙교회(권오성 담임목사)는 8월 15~18일 '강화도 발췌의 립'에서 제3차 수련회를 가진다.
- ▲ 광명장로교회(강종익 담임목사)는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하여 '21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오는 8월 20일(월)부터 9월 9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교회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 033)251-0788

사무엘이 자라더라



박상호 목사
(춘천제일침례교회 담임)
(예수사랑운동 대표)

의 가운데까지도 사탄의 세력이 침투해 있었다. 당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를 통해 그 시대의 죄악상을 설명하고 있다. 12절에서 "그들은 불광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알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척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없는 듯 행동하고 살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패역이고 타락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제사를 열지 않았다(17절)" 홉니와 비느하스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삼으면 하인을 보며 삼지창을 숨에 넣고 마구질러 고기를 가져갔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빼앗아 자기 죄를 범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만물처럼 여기고 제사를 빌하게 되는 것이다. 22절을 통하여 나타난 그들의 악행은 극에 달해 결국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범하기까지 했다. 보다 못한 아버지 엘리가 충고했으나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이었다.

구약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사사시대 마지막 때의 시대적 타락상을 보여 주고 있다. 마땅히 거룩하고 정결로워야 할 제사장

의 가운데까지도 사탄의 세력이 침투해 있었다. 당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를 통해 그 시대의 죄악상을 설명하고 있다. 12절에서 "그들은 불광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알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척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없는 듯 행동하고 살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패역이고 타락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제사를 열지 않았다(17절)" 홉니와 비느하스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삼으면 하인을 보며 삼지창을 숨에 넣고 마구질러 고기를 가져갔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빼앗아 자기 죄를 범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만물처럼 여기고 제사를 빌하게 되는 것이다. 22절을 통하여 나타난 그들의 악행은 극에 달해 결국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범하기까지 했다. 보다 못한 아버지 엘리가 충고했으나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하고 죄악과 타락의 어둠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은 아닌 것이다. 사무엘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암울한 시대마다 시대를 바꿀 위대한 인물들을 준비하시고 세우셨다. 대제사, 다니엘, 시대의 그루터기, 바알에게 철하지 않은 7천인, 그리고 사무엘.

지금 이 시대의 사무엘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

인 것이다.

모든 면에서 타락이 극에 달하고 사탄의 세력이 온 땅을 지배하여 어둠만이 가득한 것 같으나 결코 절망이 아님을 감시하자. 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청소년들, 이 시대의 사무엘이 자라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리라!"



▲ 예수사랑운동(대표 박상호목사) 청소년들이 8월 6~9일 베드로전교편타 4층에서 가진 제5회 예수사랑 수련회 모습. (사진제공: 홍준희 목사)

왕의 자녀들(King's Kids)

King's Kids는 예수전도단 청소년 사역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제자 훈련으로 한국 예수전도단에서는 92년부터 매년 훈련과 전도야영을 실시했습니다. 금번 훈련은 춘천에서 실시하는 3번째 훈련으로 기쁘게 환영합니다. 김의, 소그림(강의적분 및 중보기도)의 시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 대 상: ① 예수님을 사랑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②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훈련에 대한 본인이 의사가 확실한 사람
③ 부모님의 동의가 있고 계획적인 지원이 가능한 사람
④ King's Kids의 모든 훈련에 전적으로 순종가능한 사람
2. 기 간: ① 토요일: 2001년 10월 13일 - 2002년 2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8시까지 (예배, 강의, 소그룹)
② 전도야영: 2002년 1월 9일 - 1월 26일까지
Youth Camp와 국내 또는 해외 전도야영
3. 원서 교부 및 접수: 7월 23일 - 9월 21일 (면접일자는 개인적으로 통보)
4. 훈련비용: 접수비 10,000원 / 토요일비 150,000원
해외 전도야영 1,500,000원 (사정상 변경가능) / 국내 미정
5. 원서구 및 문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 033)252-1128
매주 화요일(예배강제교회로 문의-표자소방서)
6. 주 최: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청소년 사역 (대표인사 김봉목 목사)

예수전도단 춘천지부에
생활용품을 보내주세요

예수전도단 춘천지부(대표인사 김봉목 목사)에서는 성시신문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번에 사물계 제자 훈련을 위한 공동 생활품을 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도 동역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생활하게 될 젊은 간사들에게 작은 경험들이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도구조차 전혀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이 있으시면 작은 것이라도 저희에게 주십시오. 불평없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훈련의 복음화, 성시화를 위하여 진실로 사역하는 젊은 일꾼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품이 필요합니다

- 일반가구(책상, 의자, 책꽂이, 칼라바스, 기타 수납함 등)
- 주방용품(냉장고, 가스렌지, 수저, 도마, 칼, 냄비, 주전자, 후라이팬, 그릇, 컵 등)
- 그 외 각종 생활도구

■ 예수전도단 춘천지부로 연락주세요

☎ 033)252-1128 E-mail: kbongwook@hanmail.net

- 주 소: 200-962 후평3동 831-11 3층 예수전도단(YWAM) 김봉목 대표인사

춘천교회를 위한
DTC 예수제자훈련코스

예수전도단 춘천지부에서는 열방대학의 첫 과정인 예수제자훈련학교(DTS)를 축소해서 예수제자 훈련 코스(DTC)를 실시 합니다. 지난 봄에는 사도님들만을 위한 특별한 DTC를 주님의 은혜가운데 12주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사도님들을 포함해서 춘천의 모든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본 훈련을 두 번째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본 제자훈련코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대표 김봉목 목사)

1. 대 상: 춘천의 모든 기독교인
2. 기 간: 2001년 9월 20일-12월 27일 까지(15주간: 수직주간은 휴강)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까지

※ 대적직역 두주간은 3월의 진행 예정

3. 강의와 강의내용

강사: 다수의 예수전도단 훈련 강사

강의제목: 하나님 음성 듣는법, 영적전쟁, 신교, 중보기도, 대적직역

4. 외 배: 25만원-교비(배3원), 식비(점심) 포함

5. 준비: 성경, 필기도구, 사모하는 마음

6. 원서교부 및 문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 033)252-1128

화요일(매주 예배강제교회에서-표자소방서)

7. 훈련인원: 선착순 30명

8. 회 회: 원서 제출후(신청2장) 신청비 5만원(입금 하신편)입니다.

구좌번호: 농협 301813-52-055647 예금주:조계준

주최: 춘천성서서적문화본부, CCF(춘천교회협의회)

주관: 사단법인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